

신화가 된 그 이름 '2019 U-20 대표팀'

4강서 에콰도르에 1-0 승리...FIFA주관대회 결승 첫 진출
16일 우크라이나 잡으면 아시아 최초 U-20 월드컵 '우승'

짧은 태극 전사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36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대업에 그치지 않고 사상 첫 결승행이라는 쾌거를 일궈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12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2019 U-20 FIFA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역전을 거듭했던 세네갈과의 8강전 승리로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4강 무대를 밟은 한국은 남미 챔피언 에콰도르마저 누르고 최종 관문에 안착했다. 아시아에서는 호랑이로 통하지만 세계무대에서는 약체로 분류되는 한국이 빛낸 대항사이다. 한국에게 FIFA 주관 대회는 높은 벽이나 다름 없었다. 슬한 대표팀들이 아심찬 꿈을 안고 출항했지만, 성공이라



고 부를 정도의 결과를 낸 대회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기록 속에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과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은 성공이 아닌 기적이나 다름 없었다. 올해 여름 폴란드에서 앞선 두 대회와 견줄만한 새 역사가 쓰였다.

선배들의 4강 이상에 도전하겠다는 나선 어린 선수들은 아무도 밟지 못한 미지의 땅인 FIFA 주관 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로 오랜 기간 유소년 선수들과 호흡한 정정용 감독은 한국 남자 축구를 월드컵 결승으로 인도한 최초의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다. 여자 축구로 범위를 넓혀도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U-17 월드컵 우승 이후 두 번째 대기록이다. 정정용호의 선전은 아시아 축구계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한국에 앞서 1981년 카타르와 1999년 일본이 먼저 결승을 경험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결승전 대패로 결실을 맺진 못했다. 카타르는 독일에 0-4로 완패했고 일본도 사비가 버티던 스페인에 같은 스코어로 졌다. 한국이 16일 새벽 우크라이나를 잡으면 아시아 최초로 이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 정 감독은 "우리 스타프들이 생 많았어. 모든 스타프가 하나로 해줘서 고맙다.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았다.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KIA 최형우, 통산 1500경기 출장 · 300홈런 달성 초읽기

KIA 타이거즈 최형우(36)가 개인 통산 1500경기 출장과 300홈런 달성에 각각 2경기와 5홈런을 남겨두고 있다. 달성 시 1500경기는 통산 46번째, 300홈런은 13번째다. 최형우는 2002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데뷔 초기에는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경찰야구단을 거친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KBO 무대에서 활약하며 매 시즌 100경기 이상씩 출장, 2015년 9월 22일 시민 NC전에서 1000경기 출장을 달성한 바 있다. KBO리그 대표 거포로 활약 중인 최형우는 2008년 4월 1일 잠실 LG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고 그 해 총 19홈런을 기록하며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 중인 최형우는 2012년 7월 12일과 2015년 8월 30일 모두 대구 시민구장에서 LG를 상대로 각각 100홈런과 200홈런을, 2017년 6월 21일 광주 두산전에서 250홈런을 기록했다. 최형우는 꾸준한 장타력을 바탕으로 3년 연속 30홈런(2014~2016년, 역대 6번째)과 12년 연속 10홈런(2008~2019년, 역대 7번째)을 달성했고, 8년 연속 20홈런(1997~2012년, 2004~2011년 해외진출)을 기록한 이승엽(삼성)에 이어 역대 2번째로 6년 연속 20홈런(2013~2018년)도 달성해 홈런과 관련된 각종 진기록들을 작성해왔다. KBO는 최형우가 1500경기 출장과 300홈런을 달성할 경우 각각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韓축구 새역사' 광주·전남출신 엄원상·김정민·황태현 맹활약

폴란드에서 새롭게 쓰여진 한국 축구 역사에 광주 금호고 엄원상·김정민과 전남 광양제철고 출신 황태현이 활약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2002한일월드컵처럼 길거리 응원을 통해 마지막경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표팀은 12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준결승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1983년 4강 신화를 넘은 남자대표팀 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결승 진출에 지역 출신 엄원상과 김정민, 황태현도 힘을 보탰다. 빠른 1999년생으로 광주 경양초·광덕중·금호고를 졸업하고 광주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엄원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 1 돌파가 뛰어난 평가를 받고 U-20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엄원상은 주로 후반조커로 출전해 경기 흐름을 바꿨다. 가장 치열했던 세네갈과의 4강전 승부차기에서 대표팀의 두차



폴란드에서 12일 오전(한국시간) 새롭게 쓰여진 한국 축구 역사에 광주 금호고 엄원상(왼쪽부터)·김정민, 전남 광양제철고 출신 황태현이 활약했다.

레 실력의 부담을 안고 세번째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었다. 일본과의 16강전에서도 후반에 중원 장악 능력이 뛰어나고 통패스가 장적인 김정민은 이번 대회에서도 공수를 조율하며 4강행에 일조했다. 금호고·광양제철고 후배들의 꿈과 희망으로 우뚝 지역민 "결승전 길거리 응원으로 힘 보태고 싶다" 투입돼 특유의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했다. 엄원상의 1년 후배 김정민은 고교 졸업과 동시에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강호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신하 FC 리퍼링으로 이적해 활약한 중 대표팀에 뽑혔다. 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를 졸업한 황태현은 대표팀 정정용 감독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장 완장까지 찬 황태현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예선 3경기, 16강전, 8강전, 4강전까지 모두 선발

출장해 상대의 공격을 봉쇄했다. 마지막 1경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고교 후배들과 지역민들은 아시아 국가 최초 우승을 위해 새벽 길거리 응원을 펼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이들을 지도했던 최수용 금호고 감독은 "제자들이 큰 대회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봤다"며 "눈물이 절로 나올 정도로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재하시절에도 (엄)원상과 (김)정민이 활약해 백투키 등 큰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다"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큰 계기가 됐고 결승전은 함께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FC 구단 관계자는 "소속 선수인 엄원상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비롯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결승전 응원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장 개방여부는 광주시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결승전이 열리는 당일 오후 7시 부천FC와 홈 경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월드컵 열기가 K리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드래곤즈, 'DRAGONS SHOW' 진행

광양여고·광영중 방문 재능기부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정명)가 최근 광양여고등학교와 광영중학교를 방문하여 DRAGONS SHOW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찬희, 이유현, 김경민 등 선수 14명이 참여했다. 'DRAGONS SHOW'는 전남드래곤즈 선수들이 지난 해까지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축구클리닉, 진로수업, 배식봉사, 팬 사인회 등 재능기부를 했던 스몰어택의 새 이름이다. 이날 선수들이 방문한 광양여고와 광영중은 여자축구부가 있는 관계로 선수들이 할애받은 4교시에는 축구부 선수들과 일반 학생을 나눠 수업을 진행했다. 체육교사로 참여한 선수들은 여자축구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축구뿐만 아니라 진로 고민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포지션별로 나눠 윈 포인트 레슨도 진행했다. 또한 일반 학생들과는 공과 친숙할 수 있도록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위주의 축구클리닉을 진행했다. 축구클리닉 수업이 끝난 후 선수들은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이후에는 강당에 마련된 무대에서 학생들과 사인도 찍고 사인회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